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Gyeonggi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 5층 / 전화 : 031-212-0435~7 / 팩스 : 031-212-0442  
홈페이지 : <http://www.mentalhealth.or.kr> / 이메일 : [gpmhc@hanmail.net](mailto:gpmhc@hanmail.net)

존중의 즐거움  
Take Enjoyment in Respect

HEMI (Humanrights Education for Mental Illness)

# 정신장애인의 인권교육 매뉴얼



Great mind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Gyeonggi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존중의 즐거움  
Take Enjoyment in Respect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실천 가이드라인

HEMI (Humanrights Education for Mental Illness)

# 정신장애인의 인권교육 매뉴얼





## 경기도 정신장애인 인권실천 가이드라인

- ①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권을 가지며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 ②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외출, 외부와의 소통, 표현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한다.
- ④ 학대와 경제적, 성적 또는 부적절한 치료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 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치료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⑥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⑦ 모든 사람은 가장 적절한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 ⑧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직업선택이 자유로워야 한다.
- ⑨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⑩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 정신장애인 인권향상 편견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존중의 즐거움', 2009]

이 인권가이드라인은 경기도 인권TF(Task Force Team)에서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선언, 하와이선언, 카라카스선언, MI 원칙 등을 정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강제조항이 아닌 말 그대로 '선언' 이지만 UN(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것만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정의한 중요한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인권가이드라인' 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져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쉽게 풀어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경기도 인권TF의 숨은 노력입니다.





## 탈수용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인권

### - 자유가 치료의 질을 결정합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존중의 즐거움'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던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인권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 인권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원론적 질문에 대해, '인권은 탈수용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탈수용화 정책은 정신보건의 가장 원초적 단계다'라는 답을 던지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정신보건정책은 그 시대의 사회철학을 담보로 하며, 이를 반영합니다. 과연 우리시대의 사회철학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의 독립성에 대한 반대가 있고, 인권을 마치 편향된 이념의 산물로 치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탈수용화라는 거대 담론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정신보건정책에 탈수용화가 미친 영향은 실로 거대합니다. 하나의 정신보건정책이 그 시대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존의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한, 탈수용화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채택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가족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임상경험에서 보면, 치료진은 가족들과 더 가깝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탈수용화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상황이 전국적으로 모든 입·퇴원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돌보고, 지지해주는 구조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약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됩니다. 대부분은 가족들의 인식이 정확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원 혹은 입소에만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퇴원 후 삶을 도와줄 국가의 수단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사회 및 가족과 시설의 입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바로 탈수용화를 방해하는 한국적 요인들이 됩니다.

인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입니다. 에밀 뒤르케임이 언급한 유명한 경구를 생각해봅시다. 모든 사회현상을 사물로서 취급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으로만 규정되던 사회현상에 대한 반대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인권에 대한 담론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간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자원이 되려면, 질환 자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이 작은 매뉴얼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과 당사자 및 가족들이 정신장애인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이영복



##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이 나오게 되었네요. 2005년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인권교육이 인연이 되어, 2009년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인권교육 매뉴얼이 최종 마무리를 한 몇 명만의 전유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매뉴얼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등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단체 혹은 모임에서 이미 진행된 프로그램 중 정신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 만든 것입니다. 매뉴얼 정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쭉 점검하다보니, 기존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라 많이 변형된 터라 원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정리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고한 책자 또는 사이트를 밝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겠지요.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이기도 합니다.

- [애들아 인권 공부하자]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안내서, 인권교육총서 1,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엠투이), 출판사 사람생각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인권교육실 (지은이), 사람생각 [절판]
-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길잡이~2, 인권교육총서 3, 인권교육센터 들 (엠투이), 사람생각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http://inkwonedu.x-y.net/>
- 인권교육센터 들 <http://dlhre.org/>
- 다산인권센터 <http://rights.or.k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http://www.kapr.or.kr/>

위 내용을 잘 보셨나요? 하지만 매뉴얼이 인권교육 프로그램만, 즉 뼈대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나온 고민거리들, 문제점, 느낀점 등을 잘 정리해 주신 경기광역정신보건센터와 경기도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사랑밭의 당사자와 실무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같은 매뉴얼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권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참가자들에게 인권교육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프로그램 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또한 매뉴얼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몇 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토의하고, 또 토의해서 정리해낸 내용이 바로 뼈대와 결합해서 튼튼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인권교육 참가자에게 인권에 대해 정보를 주는 내용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인권교육 참가자에게 인권교육 진행자가 배우는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소통'을 전제로, 이를 통해 참가자 자신만이 '경험'한 내용을 꺼내어 놓게 되고, 진행자는 이에 '공감'하고,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지요. 이 매뉴얼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인권교육을 통해 나의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맞보시길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 박김형중





## 2009년 인권교재를 위한 TFT 활동을 돌아보며

세계가 시작한 이래 인간이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인권'은 비교적 최근의 관심으로 시작된 담론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제도 가운데서도 기초적 제도시설에서는 물론 나아가 파생적 제도 안에 들어 갈 수 있을 정신보건센터와 기타 기관에서 실시될 인권 교육의 내용은 그것 안에 들어 있는 텍스트의 실현성이 장차 우리들의 수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갖는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실려 있습니다.

욕망을 가진 내가 또한 같은 욕구를 갖고 있을 또 다른 나의 권리에 관한 존엄성을 어떻게 방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을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습니다.

인신보호법이 갖는 상징성 안에 정신장애인의 현주소에 관한 상대적 근거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만들어진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불편함을, 과연 거스를 수 있는 것 이겠는지를 대담하고 진지하게 그러나 가차 없이 정직성을 가지며 끈질기도록 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가운데 찾아질 수 있을 숨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세계를 들여다보며 정신장애인들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창문을 제게 열어 드리는 기회에서 첫 번째 수원시정신보건센터 상임팀장이신 김영희선생님의 인간적 접근의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더구나 김유라선생님의 가교 역할도 컸었지만 이런 저런 행사나 기획에서 제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김수영선생님의 남다른 안목과 열정에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밖에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운 여러 실무 선생님들의 고민과 현실적 제한과 관련된 일도 나름 알게 되고 만나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너무도 소중하고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의 고민어린 노력들이란 의미에서 함께 작업에 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열려 있는 마음에 정신장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정신보건센터 김슬득



## 교재편찬 취지

정신장애인에게 인권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와 편견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다른 유형에 비해 인권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정신장애인을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보다는 침해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편견과 증상(무기력, 인지기능 저하, 자아존중감 저하)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 기억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결코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편견이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사회에서 알아주고 비장애인들이 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주길 하염없이 기대할 수는 없듯이 이제는 스스로 변화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회적 역량을 키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존중의 즐거움' 프로젝트로 경기도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권향상과 편견해소를 도모하고자 이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정신장애인 인권교육(HEMI: Humanrights Education for Mental Illness)은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며 정신장애인이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이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고, '편견'을 식별하고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며 억제되어 있는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하여 정당하지 못한 행위와 상황을 비판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고 교육받는 모든 분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마음돌봄팀장 김수영

[참고로 교재안의 '다님'이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찾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Contents

- 09 | 교재구성에 대해(필독)
- 11 | 우리가 인권교육 진행자라면...
- 12 | 교육을 하다보면...
- 13 | 들어가는 페이지
  
- 15 | 1. 출발! 인권여행
- 19 | 2. 난 소중한요
- 23 | 3. 인권 누구냐 넌?
- 27 | 4. 인권아 친구하자
- 32 | 5.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 39 |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 46 | 7. 존중받으면 달라져요
- 49 | 8. 우리 몸과 인권
- 53 | 9. 인권지도 그리기
- 58 | 10. 인권 공간 만들기
- 60 | 11. 법과 친해지기
- 67 | 1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 76 | 13. 대중매체와 인권
- 79 | 14. 국가인권위원회 1
- 83 | 15. 국가인권위원회 2
- 88 | 16. 인권모임 만들어요
  
- 93 | 인권교육 후 진행자들의 인식의 변화들...
  
- 부 록
- 96 | 1. 프로그램시트 모음
- 114 | 2. 참고서적, 사이트 및 영화 소개
- 119 | 3. 인권용어 해석
- 123 | 4. 관련법(정신보건법, 인신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 CD참조
- 123 | 5. 세계인권선언, M원칙 - CD참조
  
- 123 | 참고문헌과 관련사이트

## >> 교재구성에 대해(필독)

경기도 정신장애인 인권교육교재 '존중의 즐거움'은 2009년 2월부터 총 9개 기관의 실무자와 당사자, 인권활동가 17명이 참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에 익숙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모여 뭘 했겠어?'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각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당사자들과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채워나갔던 인권교육에 대한 소중한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사실 정신장애인 대상 인권교육교재를 처음 발간하면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이나 삶의 조건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 진행자가 짚어주어야 하는 지점·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이 잘 정리되어야 할 텐데 마음만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가 많은 정신장애인에게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 인권교재구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사용하기 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인권교재는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과 CD, 참여자를 위한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자를 위한 매뉴얼에는 총 16회기 프로그램과 시범운영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과 의견들, 인권관련 참고서적과 영상 그리고 TFT회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담아낸 소중한 의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회기의 프로그램들은 마음열기, 인권알기, 차별과 차이 이해하기, 침해 및 차별 인식하기, 관계속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기, 정신보건 및 차별 관련법 등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성은 진행자를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 다님별로 진행자멘트가 삽입되어 있어 인권교육을 처음 진행하는 진행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들이 배여 있습니다.

회기별로 제목, 목표, 준비물, 다님 2~3개(다님별 진행자멘트, 진행TIP), 과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 중간중간 쉬어가는 페이지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어 시범교육에서의 진행자들과 참가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워크북에는 16회기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간단히 정리되어 직접 읽고 쓸 수 있으며 관련법과 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교육생이 직접 읽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D에는 교육PPT, 관련법, 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자료(홍보자료, 진정서, 국가보고서), 회기별 프로그램시트 그리고 교육생 워크북 등 교육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담겨있어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교재구성에 대해(필독)

### 발 자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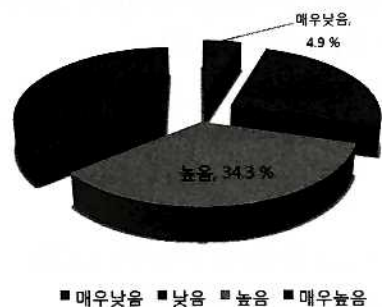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 2월~3월 정신장애인 인권교육모델개발 TFT 구성, 인권교육자료 수집 및 내용 협의
- 4월 교재개발 심화과정 워크숍 실시
- 5월~7월 교재가안 시범교육 실시 경기도 9개 정신보건기관(사랑밭, 성남, 수원,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평택시정신보건센터)
- 7~8월 시범교육결과 취합, 평가를 위한 진행자, 참가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 9월 인권교재 구성 및 편집을 위한 워크숍
- 11월 전문가 자문 / 교재 원고 수정 및 보완
- 12월 교재 디자인, 인쇄,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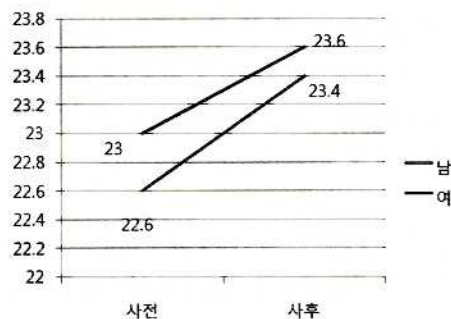


### 시범교육 운영결과

- 성 별 : 남 56%, 여 44%
- 진 단 : 정신분열 94%, 조울증 6%
- 연 령 : 20대(27%), 30대(40%), 40대(25%), 50대(7%), 60대(1%)



교육에 대한 이해



자아존중감

## >> 우리가 인권교육 진행자라면...

### ① 우리는 정신장애인의 자력화를 위한 안내자,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는 정신장애인의 자력화를 돕기 위해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발표내용이 부족해도, 참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 ② 진행자 스스로의 자기점검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진행자 자신에 대한 점검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생각에 따라 참가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지속적인 자기점검과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교육 중 갖게되는 궁금증과 사례 등을 다른 진행자들과 나누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③ 교육대상자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인권교육은 때때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해하였다고 해도 증상에 의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은 모른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인지능력, 증상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보조를 맞춰가기 어렵다면, 참가자들에 맞게 보조진행자, 교재, 설명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 ④ 참가자가 말한 내용을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 혹은 인권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지 않거나 인권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내용은 맞지 않는다', '이 내용은 반인권적이다' 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가자가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그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유도해줍니다.

### ⑤ 인권교육 진행자는 인권지킴이입니다.

진행자들이 인권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자신 또한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행자로서 '반인권'적인 사례와 환경에 대해 고민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인권침해 증언에 대해 공감해야 하는 역할을 통해 인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진행자는 '반인권'적인 사례와 참가자들이 증언한 인권침해를 간과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인권교육 '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지킴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 교육을 하다보면...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참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행자는 교육준비가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따라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보다는 격려하고, 자극을 시키며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대상자와 함께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되면서 우리들은 내가 맞게 교육하고 있나? 반응이 없는데 이해는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계속하며 교육에 대한 진행자로서의 자존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범운영을 진행했던 모든 TFTeam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진행자는 교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 인권에 대해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교육 진행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들을 참가자들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 차별 및 침해 받은 경험이 있어도 기억을 못하거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차별, 침해, 진정, 피진정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 인지기능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반복교육이 꼭 필요해요.
- 정신보건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세요.
- 초반 침해사례와 차별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굳이 기억나지 않는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점차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 권리주장을 못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세요.
- 진행자는 회원이 경험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항을 잘 듣고 도와주세요.
- 열심히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인권감수성이 점차 향상되는 즐거움을 느끼실 거예요.



## >> 들어가는 페이지(당사자의 이야기)

### ① 인권교육을 어떻게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권교육의 이론을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실습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더욱 더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몸을 못가누는 사람들을 위해 감장을 담가주거나, 목욕봉사를 나가는 자원봉사를 해봐도 좋겠어요.”

“진정을 해보기도 했어요. 군대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의가사 제대를 했거든요. 10년이 지난 후에 국가 유공자가 되기 위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사례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많이 알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져서,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쉽고 간략하게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재가 있으면 인권교육 마치고 나서 집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인권실루엣 프로그램을 하면서, 몸의 각 부분에서 나의 권리를 적은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려면, 존중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이 존중받는 게 좋은 것이구나! 느낄 수 있겠죠”

“서로 간에 존중받았던 일, 존중받지 않았던 일을 얘기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정신장애인들이 존중 받았을 때 인정해주고, 존중 받지 않았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서로 간에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좋았어요.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했지만,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서 점점 더 당당해졌을 때 상황에 맞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서명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②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계인권선언문 등을 통해 인간이 최소한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든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서 먼저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먼저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른 회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용기를 줄 수 있고, 힘들어지면 그런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을 받지 않은 회원들에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권교육을 받는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회로 나온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





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재입원해서 병원에서 환자로 지내면서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가 죽었는데,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도 해주고 같이 생각도 해주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진정서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진정서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진정내용에 따라 조사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돈을 못 받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진정서로 올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인권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진정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그냥 나의 동조자가 있다는 것,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한 인격체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거 같고 그렇게 되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지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결국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상황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이 정신장애인을 보면서 사회적인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나의 동조자가 있다는 것,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1. 출발! 인권여행

### 목 표

1.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2. 인권교육이 기간 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 준 비 물

A4 색지(4가지 색상) 여러 장(진행 내용 프린트), 크레파스, 필기구, 스카치테이프

### 진행방법

들어가기, 인권교육 시작하기(5분)



▣ **진행자 멘트** :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 입니다. 여러분 '인권' 이 뭘까요? (대답을 기다림) 네! 맞습니다. '사람의 권리' 이죠. 네. 맞아요.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인간' 혹은 '사람' 이죠? ..... 앞으로 \*주동안 인권교육 시간에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인권'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저와 다른 분들께 잘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인권교육 시간 동안에는 인권이 뭘까 고민해보는 시간도 있고,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법 즉 정신보건법, 인신보호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도 할 것이구요.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것 같아요. 또한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TIP 들어가기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경우 미리 참가자분들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서면이 어렵다면 구두동의를 반드시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결정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유무를 판단하는 권리는 바로 '자신' 이 가지고 있다”는 권리인 '자기정보결정권' 은 인권이기 때문이죠.
- 인권교육은 몇 주동안 진행되며,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회원들에게 얘기해주세요. 또한 회원분들이 인권교육기 간내에 꼭 하고 싶은 것, 꼭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다님 1. 우리 함께 인사해요. (5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입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 교육 시간엔 ‘인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이니까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짜짜짜) 누구 먼저 인사해볼까요? 네. 인사하세요. 자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서로 소개해 볼게요.

### TIP 다님1

-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표를 늦게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기다리고 얘기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님 2. 나는 누구일까요? (30분)

- (1) 3, 4가지 색깔별 종이를 준비해서 나누어줍니다.
- (2) “나는 ~을 좋아합니다. 나는 ~를 잘 합니다”의 내용을 각각 3가지 정도 적어보도록 합니다.
- (3) 다 작성한 종이를 ‘비행기’ 모양으로 접어서 날립니다.
- (4) 자신이 작성한 종이비행기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종이비행기를 집어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내용을 듣고 종이비행기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맞춰봅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에 진행할 프로그램은 퀴즈 형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거예요. 지금 나눠드리는 색지 중 마음에 드는 색지를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색지를 고르셨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크게 써주시면 됩니다. 참! 이름은 쓰지 마세요. 누군지 맞추어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나는 ~을 좋아합니다. 나는 ~를 잘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종이에 3가지 이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나는 꽃꽂이를 잘합니다.’ 형식으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작성 후) 다 작성을 하셨다면 그 종이를 ‘종이비행기’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종이비행기 모양 접기가 험드신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도와주세요. (종이비행기 모양 다 접은 후) 자, 이제 이쪽에 종이비행기를 하나 둘 셋 하면 날리는 거예요. 참, 자신이 작성한 색지의 색깔을 꼭 기억해주세요. 비행기를 날린 후에 자신이 작성한 색깔이 아닌, 다른 색지를 주어서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작성한 걸 발표하면 안 되겠죠.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둘.셋. 날리세요! (날린 후) 자. 이제 자신이 작성한 색지가 아닌 다른 색의 종이비행기를 주어 읊니다. 자, 이제 자신이 주어진 종이비행기를 펴보세요. 자. 돌아가면서, 색지에 담긴 글을 읽어주세요. ‘나는 \*\*\*를 좋아합니다. 나는 \*\*\*를 잘합니다.....’ 자 \*\*님이 읽어주신 글을 잘 들으셨죠? 누군지 맞춰볼까요? 누군지 아시겠는 분! \*\*\*를 잘하고, \*\*\*를 좋아하시는 분! 자, 누굴까요? 네. 맞았습니다. (혹은 모르겠다면, 누군지 손들어주세요.) 와! \*\*\*님이셨군요. \*\*님은 \*\*\*를 잘하고, \*\*\*를 좋아하셨네요. 매번 보었지만, \*\*\*를 좋아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자. 박수한번 쳐볼까요? (짜짜짜) (끝까지 발표) 모두 발표해 보았습니

다. (한사람씩 발표 후 박수를 쳐주도록 한다.) 모두 발표를 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잘하시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한 두 개씩 있으시네요. 전 참가자분들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 TIP 다님2

- 다님3의 색지에 미리 “나는 ( )을 좋아합니다. 나는 ( )를 잘 합니다”를 프린트하여 제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 끝말잇기처럼 약간 스피드하게 진행되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단, 말이 느린 참가자들을 다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나는 의미있는 인생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 나는 기도와 찬양을 잘합니다.
-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 나는 클래식 고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 나는 세밀한 일을 잘합니다.

### 맞음새 (1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이렇게도 진행해 봐요.

첫 시간에 인권모임에서 바라는 점, 얻고 싶은 점 등을 나눠보고 종이에 써서 모아두었다가 교육이 모두 끝난 후 펼쳐보게 합니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앞으로 진행될 인권교육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 인권교육을 통해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변화되고 싶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 >> 수어가는 페이지(실무자의 이야기)

### 「인권을 정의해 보아요!!」

“인권은 자유다. 인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공기처럼 정말 밀접한 것이 인권이구나 앞으로 찾아 나가야할 권리가 너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권은 인정이다. 차별과 편견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오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인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권은 교감이다.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존중, 나에게 대한 존중,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딱히 말은 안 하지만, 인권교육을 하는 저를 존중해주고 저 또한 인권교육을 받는 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은 강아지다’ 라고 회원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인권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쉽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강아지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정으로 쏟으면 쏟을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니까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 2. 난 소중해요



### 목 표

1. 자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2. 타인의 소중함도 함께 알 수 있어요.

### 준 비 물

A4 색지(4가지 색상) 여러 장, 크레파스, 필기구, 스카치테이프, 프린트(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권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님 1. 우리에게 소중한 것 (10분)

- (1) 진행자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 (2) 참여자의 대답을 진행자가 칠판에 적습니다.
- (3) '그것' 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4) ('물', '공기', '나무' 등 의 카드를 준비해서) '만약에 000(소중한 것)이 없다면~~~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에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이 물건일 수 있고 사람 또는 가치가 될 수 있겠죠. 이야기해 볼까요? (나오는 내용을 진행자가 칠판에 적기) (칠판에 적은 단어를 가리키며) 000가 왜 소중할까요? (몇 개의 단어(물,공기,나무)를 진행한 뒤) 자, 그럼 만약에 000이 없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요?

### TIP 다님1

- 우리에게 소중한 것, 물, 공기, 나무 등을 예시로 이야기합니다.
-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묻게 되면, 엄마 또는 반려동물 등의 구체적인 존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나 나무, 공기 등은 보편적인 권리 개념과 연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존재는 보편적인 권리와 연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없는 사람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없다면 어떻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에는 '구체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물, 공기, 나무' 등의 예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다님 2. 나는 소중한 사람 (20분)

- (1) 참가자 자신이 왜 소중한 지 생각해봅니다.
- (2) '나 \*\*\*는 \_\_\_ 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_\_\_ 해서 소중한 \*\*\*입니다.' 와 같은 형식으로 종이에 적어 보고 벽에 붙여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봅니다.
- (3) 다른 참가자들은 박수를 쳐주거나 '그래그래, 넌 참 소중해' 라고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해 줍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에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 자신이 '소중한 이유' 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다면,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자신이 소중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자신이 소중한 이유' 를 생각해 주세요. 지금 막상 떠오르지 않으면 이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을 이용해서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 \*\*\*는 달리기를 참 잘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다른 분들은 그 사람이 소중한 이유를 잘 들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박수를 쳐주시든지, '너는 참 소중해' 라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부터 해볼게요. '나 \*\*\*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 자. 이제 누가 발표해볼까요? 네. 발표해주세요. 이번엔 \*\*\*님부터 돌아가면서 발표해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각자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 해주셨네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 한명 한명이 참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다 같이 쳐봐요.



### TIP 다님2

- 참가자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다면, '1.출발! 인권여행' 에서 진행한 '다님2. 나는 누구일까요?' 에서 진행한 내용을 진행자가 알려주거나, 진행지를 참조하여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 '나는 ~해서 소중하다' 를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니까' 등 어떤 행동의 대가로 애정이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회원분들의 이야기에 잘 호응해주는 대신, '그래도 부당한 것,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겠죠?' 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나 \*\*는 마음이 착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 나 \*\*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스승님이 있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 나 \*\*는 꽃을 좋아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 나 \*\*는 헌신해서, 정직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 나 \*\*는 인간을 존중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 다님3.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라는 글 읽기(10분) [부록1 참조]

- (1) 참가자 중 한 분을 자원 받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라는 글을 읽습니다.
- (2) 참가자들의 소감을 나눕니다.

###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내 몸이 차가우면  
친구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듯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친구의 마음을 받아 줄 수 없듯이,

내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친구를 방 안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듯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친구도 소중히 여기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날 따돌린다고 느꼈을 때  
여전히 "안녕?" 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친구가 있었기에

나도  
다른 친구에게  
"너는 혼자야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구에게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그저 보고만 있으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프게 되지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친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요.

(출처 : '인권그림책' 시리즈 1권, 나는 소중해 26p, 이와카와 나오키 저, 미래M&B 출판)





☐ **진행자 멘트** : (글을 나눠줍니다.) 종이 다 받으셨죠? 이번엔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님. 한번 읽어주세요. (글 읽는다.) 다 잘 보셨죠? 이 글을 읽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님은 이런 기분이 드셨네요. 맞아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네. 네. 그렇죠. \*\*\*님이 이런 기분이 드셨다고 하니, 저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 참 기분이 좋네요. '나를 소중히 여겨야 친구를,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소중하고, 친구도 이웃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 TIP 다남3

- 시를 읽을 때 배경 음악이 있다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 참가자들이 읽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자가 도움을 주어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시를 읽다보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보다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우선 내자신부터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내가 존중받는 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참가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권은 다른 사람한테 잘하기 이전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달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모두가 날 따돌릴 때 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다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소중히 여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한 친구를 괴롭혔던 경험이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 맺음새 (1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타인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사람 1명을 정하여 그 사람과 내가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지 토의해 봅니다.
2. 나의 가족(친구)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를 때, 그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인권! 누구나 넌?



### 목 표

1.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2. 자신과 우리의 인권을 함께 생각하고 존중의 개념을 알 수 있어요.

### 준 비 물

꽃모양 종이, '길따라 삼천리' 활동지, A4 색지 여러장, 필기도구, 스카치테이프, 크레파스

### 진행순서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 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TIP 들어가기

- 프로그램 시작 전 지난 시간에 읽었던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라는 글을 읽으며 시작해보면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다남 1. "나에게 소중한 5가지" (30분) [부록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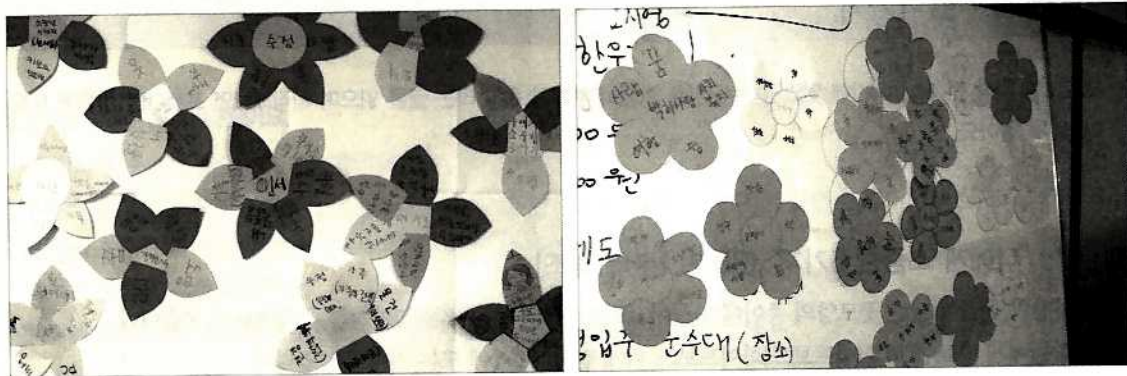
- (1) 다섯장의 꽃잎이 달린 꽃모양의 종이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5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습니다.
- (2) 사람들에게 발표한 뒤 화이트보드(화이트보드 위에 전지) 위 맘에 드는 위치에 붙입니다.
- (3) 참가자들의 꽃이 붙여있는 모습을 보고 느낌을 공유해 봅니다.
- (4) 각자 소중한 것을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되는 사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 (5) 참가자들이 붙인 꽃을 훼손해보고 느낌을 공유해 본 뒤 각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사회의 느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 (6)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와 침해당하는 사회로 비유하여 인권의 의미를 설명해봅니다.

☐ **진행자 멘트** : 다섯장의 꽃잎이 달린 꽃모양의 종이를 각자 한 장씩 가져보세요. 마음에 드는 색으로요. 꽃잎 가운데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를 써주세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어도, 자신의 별명, 아이디 등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꽃잎 다섯장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5가지를 적어주세요. 자 모두 다 작성하셨나요? 그럼, 서로 작성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일단 저부터 해볼게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5가지는 '00, 00, 00, ...' 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 입니다. 박수한번 쳐주세요. ( 짹짹 ) 발표가 끝나면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맘에





드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럼 발표해볼까요. (모두 발표 끝) 와!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지켜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해주는 박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 놓은 그림을 보니 느낌이 어떠세요? (좋다. 괜찮다. 예쁘다. 조화롭다 등등) 각자 모두 소중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사회의 모습으로 가정해봅시다. 사회 안에서도 모든 성원들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좋은' 사회, '괜찮은' 사회, '예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음. 그럼 이번엔 이런 사회를 한번 볼까요? (한장씩 찢거나 구기는 행동을 한 뒤 사과를 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거나, 누군가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때, 공권력에 의해 한꺼번에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이라크 사람들 처럼 전쟁에 의해 자신의 삶의 터전이 한꺼번에 무너질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넌 정신장애인이야' 일할 수 없어', '정신장애인은 병원에서 나오면 안돼', '정신장애인이야? 우리 식당에서 나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쓴 '꿈' 이나 '일', '직업' 등을 빼앗아 갈수도 있겠죠] 이것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참담하다. 슬프다. 등등)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고 짓밟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참담하고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지켜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지지하듯이 박수를 같이 쳐준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TIP** **다님1**

- 꽃을 훼손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과를 하도록 합니다.
- 꽃을 훼손할 시 정신장애인이 들었던 편견이나 인권침해의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죠.
- 꽃을 하나 더 준비해서, 프로그램 훼손 이후에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 색지 위에 자신이 직접 꽃모양을 그리고 소중한 것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나에게 소중한 것 다섯가지는 : 변함없는 마음, 성경, 주님, 부모님, 핸드폰, 친구들, 가족, 사랑, 컴퓨터, 생활비 등등
- 꽃을 훼손했을 때 :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 '무시당하는 걸 느꼈어요. 기분 나쁘네요'
-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요'
- '진행자에게 실망했어요'
- '차라리 마음이 시원해요'

**다님2. "길따라 삼천리"(15분) [부록1참조]**

- (1) 진행자는 두 사람씩 짝을 짓게 하고 달팽이 모양의 그림을 나누어줍니다.
- (2) 참여자 중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펜을 쥐고 또 한 사람은 말로만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3)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자는 '안내자'와 '안내에 따른 자'의 소감을 잘 이끌어내어 화이트보드에 적어봅니다.
- (4) 참여자는 실제 그려진 길들의 차이는 왜 생겼을지 어떤 말이 길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었는지 눈을 감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했을 것 같은지 안내한 사람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5) 또한 어떤 안내가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설명이 혼란을 야기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야기해봅니다.
- (6) 이 프로그램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늘 양보와 희생을 강요받는 입장일 수도 있기에 중요한 것은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술래'에 대한 '지지', '술래를 고려한' '길찾기'가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진행자 멘트 :** (길따라 삼천리 시트지를 나눠줍니다.) 2인 1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서요. 두 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짝을 다 지었다면, 그 중에 한 분은 진행자 한 분은 술래(안내에 따르는 자)를 해주면 됩니다. 술래는 눈을 감고 펜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진행자는 술래가 '회살표'를 시작으로 해서 가운데 '점' 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세요. 단, 손을 대지 마시고 말로만 잘 설명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얘기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모두 즐겁게 진행) 혹시 빨리 끝난 분들은 서로 바꿔서 다시 한 번 해봐주세요. (끝)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게 다들 하셨나요? 그러면 소감을 들어볼까요? 진행하셨던 분들은 어떠셨어요? (답답하다. 힘들었다. 술래가 잘 따라줘서 고맙웠다 등등) 네. 그러셨군요. 그럼 '술래' (안내에 따른 자)하셨던 분들은 어떠셨어요? (답답했다. 눈을 뜨고 싶었다. 진행해주는 분이 잘 말씀해주셔서 고맙웠다. 등등)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내 말대로 하지 않을까? 당연히 저 길을 가야하는데, 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답답해하죠. 하지만 상대방도 상대방의 생각대로 길을 가고 있죠. 상대방도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꺼예요. 그 상황





에서 무조건 '넌 잘 못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지지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제가 화살표에서 점까지 가도록 말했듯이 꼭 달팽이 테두리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살표에서 점으로 곧장 직선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며) 그냥 화살표에서 점까지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요. 이 테두리는 사회의 관습이나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겠죠. 술래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지름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술래를 지지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테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술래'가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중요시해야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술래와 방향을 맞춘다. '술래'와 미리 잘 상의한다. 술래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스타일에 맞춘다. 술래가 잘 가고 있다면 지지해주고, 못가고 있을 때 격려해준다 등등)

이 프로그램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와 양보를 하자라는 프로그램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술래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소수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술래가 들었던 말인, '답답하다', '너무 못한다' 등의 얘기를 듣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이해하고 고려해서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눈을 감고 있으니 안내자의 말을 의심하게 되고 내맘대로 가고 싶었어요'
- '상대방이 잘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 '답답해서 보다가 제가 그냥 손을 잡고 그렸어요'
- '금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잘 안되네요'
- '그리는 동안 힘들었지만 둘이 함께 힘을 합쳐 한다는 것이 좋았어요'



맞음새 (1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 4. 인권이! 친구하자~



목 표

1.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친구처럼 느낄 수 있어요.
2. 참가자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준 비 물

A4 색지, 필기도구, 스키타치페이프, 크레파스, 그림카드 여러장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짐1. 인권이란 무엇이다. (25분) [부록1참조]

- (1) 4절지 크기의 색지를 모둠별로 나누어줍니다. 구성원에 따라 모둠의 인원을 자유롭게 구성합니다.
- (2) 한 개씩 받은 그림카드에 적혀있는 단어를 가지고 '인권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본다. 예를 들어, 기린이 적혀있는 그림카드를 받았다면, '인권이란 기린이다'라고 적어보고, 왜 기린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당 시트에 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인권은 기린이다. 왜냐하면 기린의 시야처럼 높고 보다 더 넓게 인간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 (3) 이후, 각 모둠별로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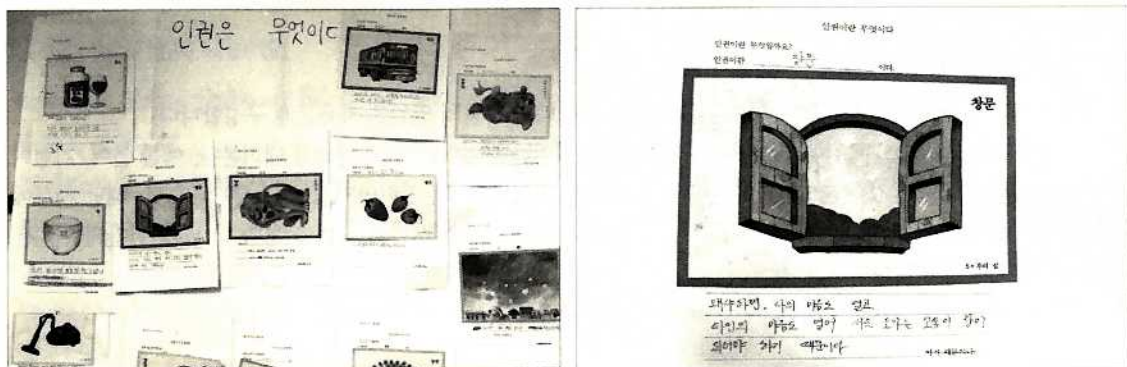
**진행자 멘트 :** 이번엔 '인권'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인권이란 무엇이죠? 인권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권리요, 인간으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요) 네. 맞아요. 인권이란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신 것이죠. 이번 프로그램에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다양하게 생각해보도록 하죠. 모둠별로 그림판을 받아주세요. 그 중에 자신이 맘에 드는 그림판을 하나 골라주세요. 다 받으셨으면 '인권이란 무엇이다 시트지'도 한 장씩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림판을 '밑줄'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선택하신 분들은 '인권이란 밥이다.'라고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적어보시는 거예요. '인권이란 밥이다. 왜냐하면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인권 또한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정의를 내려 보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편하게 정의를 내려 보세요. (모두 작성) 자, 돌아가면서 발표 해볼까요? (모두 발표, 박수) 와. 정말 대단하세요. 각자 인권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권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천부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천부인권의 뜻이 뭐죠? 네. '하늘에서 부여한 인권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인권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정





의내리기엔 2프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권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흑인이 노예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인권이 있는 존재임을 주장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얘기해볼까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의한 것처럼 인권이란 '밥' 처럼, 누구에게나 단비가 되어 주는 '비' 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에 대해 정의를 얘기해주세요)



### TIP 다님

- 만들어진 '인권이란 무엇이다' 진행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게시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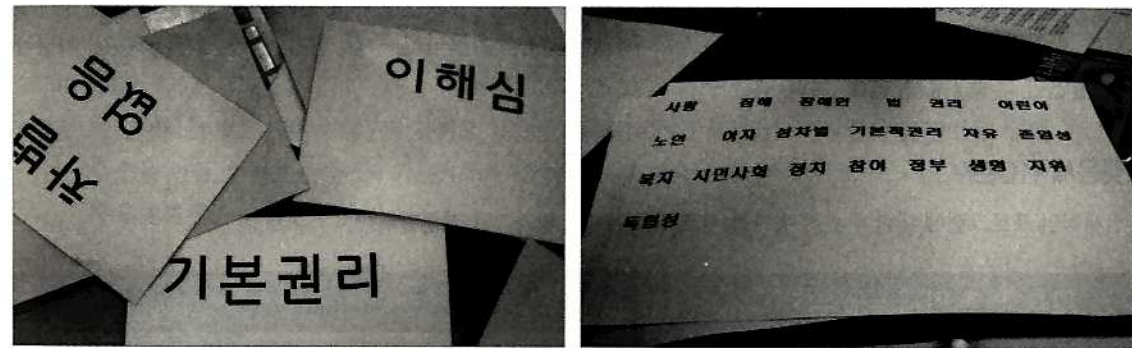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인권이란 창문이다. 맑은 하늘을 보게 하는 것, 문을 열어 새롭게 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다.'
  - '인권은 버스다. 왜냐하면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타듯이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 '인권은 비다. 인권은 생명에 활력소를 주는 비라고 생각한다. 세상만물에게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너무 많으면 민폐를 끼치기도 한다.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잘못 사용하면 남에게 폐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청소기이다. 부정하거나 잘못된 편법, 그리고 남을 짓밟는 사람 등을 청소기로 빨아드리면 좋겠다.'  
'인권이란 주스이다. 주스는 남을 기분 좋게 하고 시원하게 갈증을 풀어주는 것처럼 인권도 그렇기 때문이다.'

### 다님 2. 인권을 존중하는 단어찾기(20분)

- (1) '인권' 과 관련된 '인권' 을 존중할 수 있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나누어 의견을 내어보고 A4 용지에 큰 글씨로 적어봅니다.
- (2)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붙여보고 왜 이 단어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지,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인권과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해 봅니다.

▶ 진행자 멘트 : 방금 인권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았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인권' 과 관련된 '단어' 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나 요소들이 '인권' 을 존중해줄 수 있는지, '인권' 을 지킬 수 있는지, '인권' 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 과 관련된 '단어' 로 '존중' 이 있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A4용지에 함께 적어 보아요. 혼자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모둠별로 생각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작성) 자, 그럼 모둠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볼까요? 그럼 이 단어를 통해 '인권' 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존중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수) 네. 모두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 TIP 다짐1

- 참가자들의 상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다른 참가자들에게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질문 등을 통해 참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 후 다른 참가자들에게 전달해도 좋을 것 같아요.

-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어가 인권을 '존중'하는 단어가 될수는 없겠죠? 엄밀히 따지면 인권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짚고 가야할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행자는 단어들을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 양보(배려) - 양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양보는 참 좋은 가치이죠. 누군가를 배려하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요소들을 그냥 참고, 양보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단어가 될수는 없겠죠?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기 때문에. 누가먼저 권리를 향유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일 것 같아요. 배려도 마찬가지로요. 배려는 참 좋은 가치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인권'이 바라는 사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배려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계단위로 올려주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이 스스로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일 겁니다.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평화, 반차별, 인간, 자유, 기대감(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평등, 삶, 울타리, 광장, 헌법, 생명, 경청, 소수자, 차별금지, 발언권, 존중 / 봉사, 배려, 예의, 겸손

### 맺음새 (10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인권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인권적이라고 하는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2. 일상 속에서 인권적인 존중의 언어들을 연습하여 사용해보아요.



## >> 수어가는 페이지(당사자들의 이야기)

###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든 삶에 있어서 평등하고 가치 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요.”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권은 평등해요.”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구별 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 최소한의 권리란 문화생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고, 미디어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지요”

“인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인권, 인권은 존중이고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최소한의 권리인거 같아요 - 노인, 장애인, 약자에 대해 존중을 해줘야 해요”

“인권은 장애인도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편견 없이 인격적으로 같이 동등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돼요.”

“인권은요,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을 권리,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을 권리인 것 같아요 - 인격이란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형태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신체, 정신적인 결함이나 차이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지 않아야 될 권리에요”

“인권이 종교인도, 장애인도, 약자나 약자가 아닌 사람이나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돼요”





## 5.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 목 표

1.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2. 차이와 차별, 편견과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차별이나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알도록 합니다.

### 준 비 물

A4 색지(4가지 색상) 여러장, 2절지 10장, 크레파스, 필기구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짐 1.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10분) [부록1참조]

- (1) 진행자가 그림을 이용해서 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p>“차씨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p> <p>첫째는 '이'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별'이라는 이름의 아기였습니다.</p> <p>둘은 생김새가 비슷한 만큼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p> <p>아장아장 걷는 것도 옹알옹알 종알거리는 것도 모두 닮았습니다.</p> <p>그래서 동네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가 어렸을 때는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답니다.</p>	<p>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두 아이는 닮은 듯도 하면서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p> <p>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날</p> <p>차별이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친구에게 너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p> <p>그리고 얼굴이 못생기고 집이 가난한 친구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p>
---	--

<p>단지 자신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p> <p>하지만 차이는 장애인 친구가 다리가 불편한 것과 자신이 다리(개)를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그저 서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만의 소중한 점과 그 친구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p> <p>결국 차별이는 자신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도리어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지만 차이는 키가 작지만</p>	<p>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구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기에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p> <p>차이와 차별은 서로 닮은 쌍둥이 같지만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p> <p>나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p> <p>혹시 나는 내 주위의 친구와는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둘러보세요.</p>
--	---

▶ **진행자 멘트** : 이번 시간에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볼까요? (함께 본다.) 어떤 이야기였죠? 네. 맞아요. 쌍둥이 이야기예요. 쌍둥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차이'와 '차별'이었죠. '차이'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친구가 되었죠? 그런데 '차별'이는 어땠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놀지 않았고, 얼굴이 못생기고, 가난한 친구를 따돌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차이'와 '차별'의 뜻을 함께 정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다르다'의 뜻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시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등등 이렇듯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이'를 이유로 사람을 따돌리거나, 놀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차이'를 이유로 사람을 구별해서, 따돌리거나, 놀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바로 이러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에 대한 뜻을 아시겠어요?

### TIP 다짐1

- 삽화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가자들이 '차별'과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합니다.



## “차씨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 다님2. 윈스턴과 알라오 고쳐쓰기 (15분) [부록1참조]

- (1) '윈스턴과 알라오' 라는 글을 읽어봅니다.
- (2) 이 글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관계 혹은 차별적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봅니다.
- (3) 글을 고쳐보고, 서로 이야기해봅니다.

### 윈스턴과 알라오

윈스턴씨는 영국 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윈스턴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 **진행자 멘트 :** 이번엔 '윈스턴과 알라오' 라는 글을 바꿔보는 시간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글을 읽어 보았는데요, 윈스턴과 알라오라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 글이죠. 그런데 윈스턴과 알라오, 이 글은 윈스턴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관계가 숨어 있어요. 알라오를 차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있는데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네, 맞아요. 윈스턴에게만 '씨'를 붙였죠. 알라오에게 함께 '씨'를 붙여주던지, 둘 다 '씨'를 붙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윈스턴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썼는데, 알라오에게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썼어요. 둘 다 동등하게 '나라'를 적어주면 좋겠네요. 분명히 알라오에게도 '국적'은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아시아' 사람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자 하나가 더 숨어있는데요, 무엇 일까요? 직업이요? 윈스턴은 의사이고, 알라오는 농부라고요? 그건 직업의 선택이니까, 일방적이거나 차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윈스턴은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치료해주는데, 알라오가 윈스턴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있을텐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죠?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엔 글을 새롭게 바꿔보세요. 윈스턴과 알라오, 누구에게 일방적이지 않은 글을 써볼까요? (한 두분 발표) 몇분 발표를 해볼까요? 와, 잘쓰셨어요. 간단한 글이라 내용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 곳곳에 숨어있는 차별의 요소들을 찾아 고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이 글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관계 혹은 차별적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봅니다  
 다 찾아보셨죠? 이제 이 글을 새롭게 고쳐볼까요?

윈스턴씨는 영국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사람  
 윈스턴씨는 농부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도 의사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 TIP 다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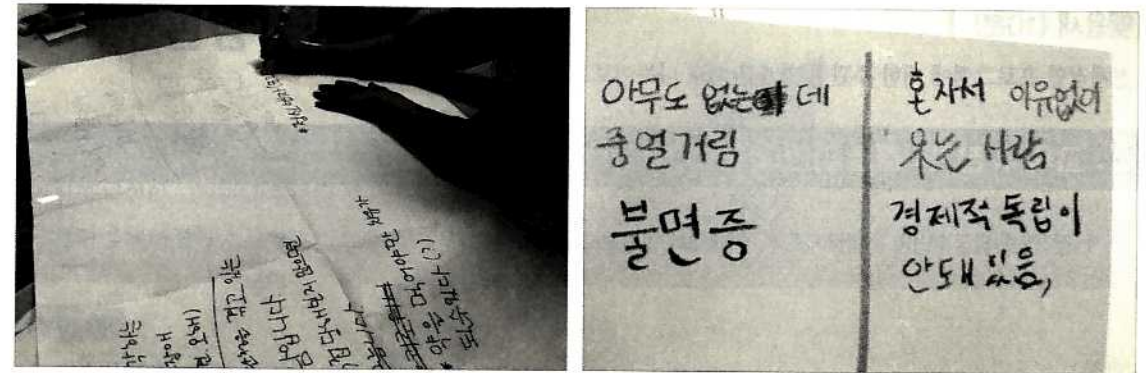
- 윈스티씨와 알라오 글을 한번 고쳐보고 진행해도 좋을 듯 해요.

- 윈스턴 씨는 영국사람
- 그에게는 알라오 씨라는 친구가 있어
- 알라오 씨는 나이지리아사람
- 윈스턴 씨는 내과의사이고
- 알라오 씨는 농부라네
- 윈스턴 씨는 알라오 씨에게 열날 때 먹는 약을 보내주고
- 알라오 씨는 윈스턴 씨에게 먹을 것을 보내준다네
-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지
- 그들은 서로 감사하며 산다네

### 다님 3. 편견과 오해 (25분)

- (1)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 정리해 온 것을 모둠별로 의논하고 2절지에 적어서 화이트보드에 붙이도록 합니다.
- (2) 증상과 약 그리고 강제입원과 기타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편견과 오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해보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당당해 지도록 격려합니다. (드라마, 영화, 신문 등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글 등을 발췌해서 예로 보여줍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오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오해' 등을 적어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정신장애인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써보시는 거예요. 모둠별로 함께 얘기해보시고, 전지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다 작성후) 자, 그럼 모둠별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와 같이 '편견' 과 '오해' 그리고 '차별' 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지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지요. '정신장애인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는 사회의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정신장애인이 보이고 있는 증상은 비장애인과의 '차이' 일 뿐이죠. 우리 이제 '차별' 과 '편견', '오해' 에 당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도록 해요. 그러실 수 있겠죠?



### TIP 다님3

- 진행자가 이야기의 시작을 이끌어야해요.

(강제입원,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한 차별, 자기 결정권이 없었던 경험, 이웃사람의 차별 등)

-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기
- 내가 생각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생각 들어보기(증상과 생각 구별)
- 편견을 조장하는 원인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 차별받는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참가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이나 편견이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고, 자신이 차별받았을 때에는 자기주장을 해야 함을 이야기해주세요.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내가 생각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 '살아가는 환경이 안 좋다'
  -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할 수 있다'
  - '정정당당하게 맞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
  -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
  - '사회의 지식이 부족하다. 전문지식을 보유하기가 힘이 든다.'
-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 '격리시켜야 할 사람'
  - '가만히 있는데 실실 웃는 사람'
  - '무서운 사람'
  - '지능이 떨어진다.'
  - '싸이코패스이다'





### 맞춤서 (10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해합니다.

##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 목 표

1. 자신과 타인의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 고정관념이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준 비 물

고정관념 상황지, 2절지 여러장, 필기도구, 스키테이프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짐1. 고정관념 단어 연결하기 (20분) [부록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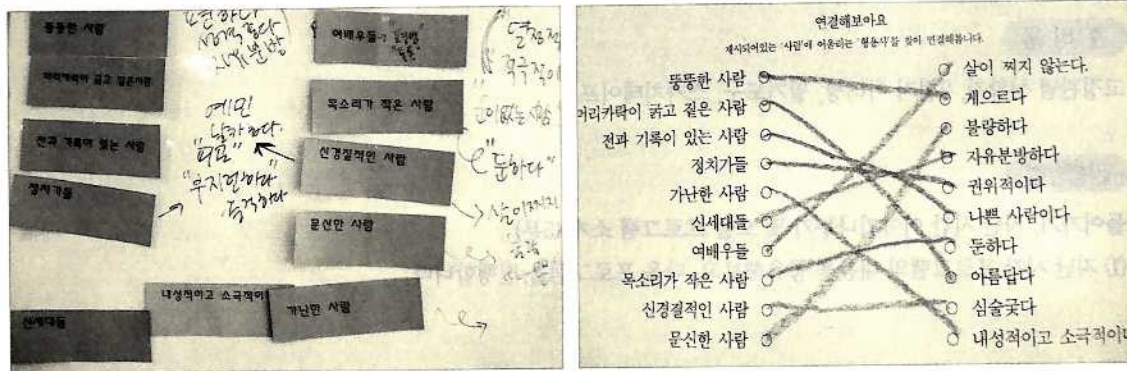
- (1) 제시되어있는 '다양한 사람'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아 연결해봅니다.
- (2) 사람의 외형적인 특성과 성격적인 특성을 구분하는 단어를 서로 연결해보고, 고정적인 선입견과 편견, 차별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야기해봅니다.

둥둥한 사람 ○	○ 살이 찌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굵고 짙은 사람 ○	○ 게으르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	○ 불량하다
정치기들 ○	○ 자유분방하다
가난한 사람 ○	○ 권위적이다
신세대들 ○	○ 나쁜 사람이다
여배우들 ○	○ 둔하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 ○	○ 아름답다
신경질적인 사람 ○	○ 심술궂다
문신한 사람 ○	○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에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왼쪽 '사람' 과 오른쪽에 나온 '설명하는 말' 을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동뚱한 사람은 '이럴 것 같다', 여배우들은 '이럴 것 같다' 는 '설명하는 말' 로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결해볼까요? (다 작성후) 모두 연결하셨죠? 하나씩 하나씩 함께 볼까요? 그런데, 단지 외모가 이렇다고 해서, 목소리가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렇거야'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경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의 '고정' 된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고정되어있는 생각을 바꿔내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TIP** **다님**

- 교육에 사람의 외형적인 특성(ex)동뚱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을 경우 그 자신은 민망해 하며 부끄러워 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은 그 회원을 생각해서 형용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진행자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사람과 형용사에 대한 그림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님 2. 고정관념 그려보기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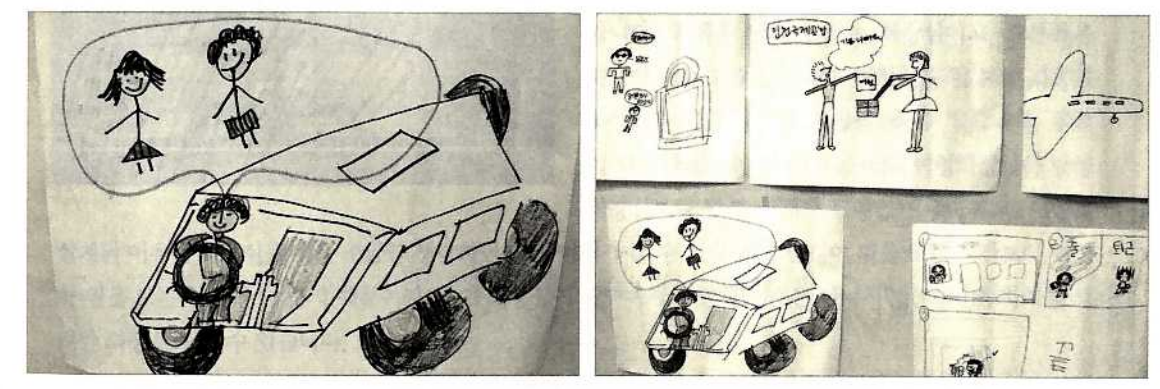
- (1) 각 모둠별(개인별)로 상황지를 나누어 주고 상황지에 맞도록 그려보도록 합니다.
- (2) 그림을 그릴 때는 비교적 웃차림이나 머리모양 등 인물이 상세하게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하고 그림을 다 그리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자들 대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림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들어보고 그린 내용에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상 · 황 · 지**

나는 버스운전기사입니다.  
저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을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제 자녀들을 보면 힘이 불끈 솟는답니다.

▶ **진행자 멘트** :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모둠별(또는 개인당) 한 장의 종이를 드릴 텐데요. (종이를 나눠줍니다.) 상황지를 잘 읽어보시고, 종이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준비되셨죠? 자 종이를 읽어보시고, 그림을 협동해서 그려보아요. 너무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둠별로 멋지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버스운전기사를 그린 모둠 분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버스운전기사를 모두 '남성' 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네요. (그림을 성 구분을 모호하게 그린 모둠에게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물어보셔도 좋겠네요.) 우리 머리 안에 '고정' 되어있는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이 차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며,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일을 분담하던 시대는 지나갔죠.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남성은 고임금 혹은 정규직의 일을 하고, 여성은 저임금에 비정규직의 일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해요. 이러한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부터 깰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림 '농구경기' 얘기가 있는 그림들을 볼까요? 다들 건강한 남자선수를 그리셨네요? 농구는 주로 누가 하나요? 꼭 농구를 건장한 남성들만이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여성들도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고정' 된 생각을 다시 한 번 열어보고, 좀 더 '다양' 한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 TIP 다남2

- 고정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것 또한 '잘못'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임을 얘기해주세요.
-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다양한 그림, 사진,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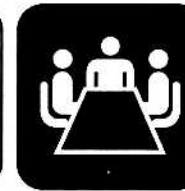
#### 맞춤서 (10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참·고·자·료



자, 이번엔 표지판을 함께 살펴볼까요? 안내 표지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온 표지판에 나온 사람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에 등장하는 여성은 남성은 이런 일을 하고, 여성은 이런 일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나뉘어져있는 성별분업이나 가족관이 반영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잡고 타세요”라는 표지판에서 아이를 잡아야 할 대상을, 아이를 보호해야 될 대상을 여성으로 상징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아래 표지판들은 어떤가요?



첫 번째 표지판은 호텔이나 공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표지판도 예약 상담을 받는 노동자를 여성으로, 예약을 하는 사람을 남성으로 표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비스 업무를 여성이 해야하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보입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 “회의실”을 상징하는 표지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을 남성으로 상징되는 사람만이 보입니다. 회의실에 회의를 하는 사람 중 여성이 사라진 것이죠. 이처럼 국가 표준을 만들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여성을 넣어야 한다면, 남성을 넣어야 한다면,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동성애자 등등도 넣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그렇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들어가는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다른 방식의 그림문자나 표시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구요.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 회의를 뜻하는 탁자라던가, 노트, 필기도구 등으로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다음으로는 화장실 얘기를 해볼까요?

이 그림은 한강공원에 새롭게 개장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남성이 쓰는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여성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잘 보면 기존의 화장실과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성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넓게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화장실 풍경을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일을 보는 시간보다 여성이 일을 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이 화장실이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은 아니지만, 여/남의 차이를 고려한 화장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표시는 장애인화장실 표시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 어떠세요? 인권의 눈으로 한번 잘 살펴





볼까요? 네. 그렇지요. 장애인화장실이 여/남 구분 없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여성화장실을 설치하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여성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출처 : 2008 420장애인의 날-장애여성 정책요구안]



(출처 : 오마이뉴스 이상경기자)

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듯 하네요. 한 지하철 역사 내 남성화장실 가는 길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정말 씩씩한 맘을 주지 않을 수 없네요.



이번엔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이런 시험문제를 풀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의식적으로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은 '콜럼버스' 이겠지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즐겨보았던 위인전 등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보았지요.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다른 대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주민, 선주민, 인디언이라 불리는 사람' 이겠지요. 정리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콜럼버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 대륙의 발견이겠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침략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인권교육센터 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좀더 생각해볼 수 있어요.



### >> 쉬어가자는 페이지 (당사자의 이야기)

#### 「인권교육 시범운영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저는 처음에 비행기 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의 인권이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을 갖고 자기 존중을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어요. 내 자신부터 좀 생각을 자신감을 갖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인권교육이 뭔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나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엔 인권 시범운영 교육이 좀 의아스러웠어요. 인권? 장애인에게 인권이 있었나? 생소했었어요. 이후 인상 깊었던 것이 역할극이었는데,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의 편견으로 인해 피해 받았던 일들을 구성해서 역할극을 했었어요. 역할극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인 바로 나를 소중히 생각해야겠다는 말이죠”

“저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정신장애인이니까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내 자신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너무나 좋았어요”

“이전엔 자신감이 좀 적었어요. 내가 정신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었거든요. 이로 인해 힘들어하고, 많이 우울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 느꼈어요.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에 든든함이라고 해야하나?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회원 친구들도 칭찬해주고, 기분 좋으니까 자기 자신도 칭찬하면서, 좋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외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인권교육을 하면서 인식이 바뀐 부분은 우리도 못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조모임을 만드는 것,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쓰는 것, 저는 한번도 안해봤지만 한 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보다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정신장애인 끼리 좋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볼 수 있는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관의 프로그램 가운데 인권교육이 들어왔다는 것이 좋았고, 인권교육 전 후의 차이는 잘 정리가 안되지만,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자신의 주장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정신장애를 앓는다고 집에서 약만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한문 자격증 시험 등에도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사례들이 많으니까 간접경험을 한 것 같아요”





## 7. 존중받으면 달라져요.



### 목 표

1. 존중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2. 우리가 존중받는다면 무엇이 달라질지 고민해보고 이야기해봅니다.

### 준 비 물

A4 색지(4가지 색상) 여러장, 2절지 10장, 크레파스, 필기구, 화이트 보드, 보드마카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님 1. 나의 소중한 물건(15분)

- (1) 각자 종이를 나눠주고, 나의 소중한 물건 한가지와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 (2) 종이를 칠판에 붙입니다.
- (3) 종이를 떼면서 작성자에게 "소중한 물건을 빼앗겼을 때 느낌을 이야기 들어봅니다."

▶ 진행자 멘트 :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과 이름을 적어보세요. (작성 후) 그 물건이 왜 소중한지 들어볼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겼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소감을 나눠요.)

### 다님 2. 존중의 경험을 이야기해요(20분) [부록1참조]

- (1) 존중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 (2) 존중에 대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 (3) 내가 누군가를 존중했던 경험을 이야기 합니다.
- (4) 내가 존중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느낌 나누기를 합니다.

▶ 진행자 멘트 : 자. 이번에는 누군가를 존중했던 경험과 존중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간 상 따로 적어도 좋겠지만, 회원들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진행자가 화이트보드에 적는 방식도 좋겠습니다.)

## TIP 다님2

- 존중의 예시 (자리를 양보, 칭찬하고 격려, 웃으면서 인사하기, 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 내 이야기를 들어 주었을 때)를 적절하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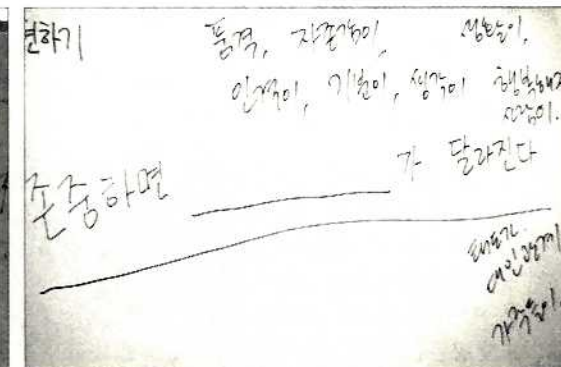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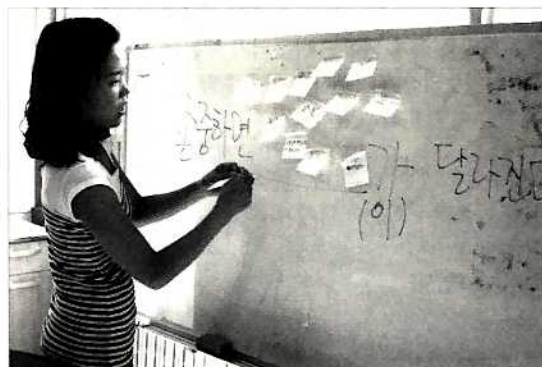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모르는 길을 안내받았어요'
- '장애인이라고 도움을 받았어요'
- '은행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인사를 받았어요'
- '가족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 '같이 일하는 형이 내가 아프다고 짬뽕 한그릇 사주었을 때'

### 다님 3. 존중받으면 달라진다(15분) [부록1참조]

- (1) 존중받으면 \_\_\_\_\_ 가 달라진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본다.

▶ 진행자 멘트 : 자 모두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해볼까요? '존중받으면 \_\_\_\_\_ 이 달라집니다.' 라는 글을 채워볼까 하는데요. (A4지에 작성할 수도 있고, \_\_\_\_\_ 만을 포스트잇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 한번 작성해볼까요? 와~ 모두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존중받으면 \_\_\_\_\_ 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 입니다. 우리가 키가 작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중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TIP 다남3

-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꺼예요.

(마음가짐(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진다. / 생각, 마음, 말, 몸가짐, 자세가 달라진다. / 대인관계가 좋아지며 대화도 잘 된다. / 서로 간에 존중해서 삶의 의욕이 생긴다. / 남이 나를 존중해주는 것 같다. / 본인의 인격이 달라진다. 본인의 성품이 달라진다. / 배려가 달라진다. / 마음이 따뜻해진다. / 대우가 달라진다. / 자세가 달라진다. / 언어가 달라진다. / 내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좋게 달라진다. / 먹을 것이 생긴다)

### 맞춤새 (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한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존중 받고, 서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안에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2. 정신장애인으로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 받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 ‘함께 고민해봐요’

#### 정신장애인의 주거권은 무시당해야 하나요?

▶ **상황** :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양성증상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윗층에 올라가 쿵쿵 소리를 내며 시비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걷어차고 망치로 내려찍는 등 무서움에 시달려 민원을 접수시켜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치료받고 퇴원을 하게 되어도 반복되기 때문에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거부하고 공동주택 이웃들은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이사갈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안만들기** : 이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권이 우선인가, 주민들의 주거권이 우선인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가족,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공동주택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소통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이웃과 공유하고, 정신장애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정신장애인이 낮치료와 밤병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공동주택 이웃들이 정신장애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 교육이 잘 진행된다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동주택 주민 중 정신장애인에 의해 심리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해줄 수도 있겠지요.

## 8. 우리 몸과 인권

### 목 표

1.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2. 몸의 각 부분의 권리가 세계인권선언에도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준비물

2절지 10장, 크레파스, 필기구, 스키타이프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남1. “말하지 않고 생일별로 줄서기”(10분)

- (1)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몸짓으로 생일을 보여주어 줄을 서 봅니다. 함께 선 후에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자신의 생일을 이야기해봅니다.
- (2) 단지 말이 아닌 눈빛과 행동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음을 즐거운 게임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진행자 멘트** : 오늘은 우리의 몸도 풀고 마음도 푸는 시간을 가지려해요. 처음으로 시작할 프로그램은 '말하지 않고 생일별로 줄서기'입니다.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고 손, 몸짓으로 생일을 표현하고 일렬로 줄을 서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모두가 줄을 선 후) 생일이 제일 빠르신 분부터 확인해볼까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단지 말이 아닌 눈빛과 행동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다님2. 우리 몸과 인권 : 인권실루엣 표현하기(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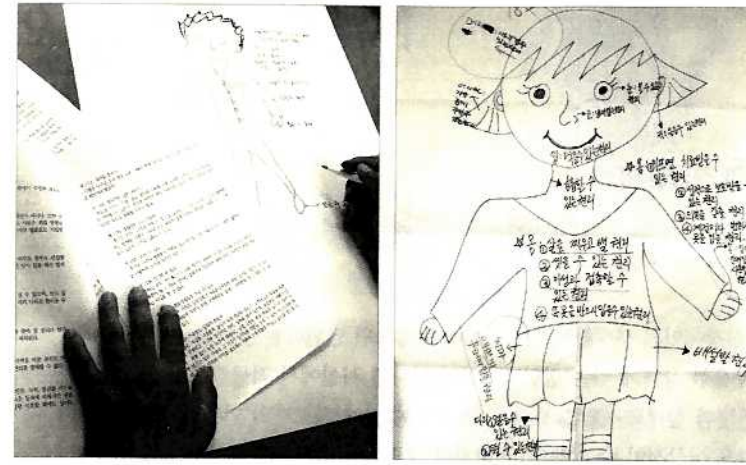
- (1) 조별로 나누어 사람의 형체, 실루엣을 그립니다.
- (2) 해당 신체의 부분에 어떤 인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각 신체의 부분에 적어봅니다.
- (3) 해당 권리가 '세계인권선언'의 몇 조에 해당하는지 찾아봅니다. [부록1참조]
- (4) 각 조별로 돌아가며 발표해봅니다.
- (5) 각각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6) 발표시간에 나오지 않은 다른 권리 등에 대해 다루어주고 이야기 나눕니다  
(예.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권리,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권리, 깨끗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권리,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권리, 나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권리)

**▶ 진행자 멘트 :** 자. 이번에는 '우리 몸과 인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진행했지요? 네. 맞아요.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봤어요. 이번에는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하는 인권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해요. (화이트보드에 사람실루엣을 그려주세요) 각 모듈별로 전지에 저같이 사람모양을 하나 그려주세요. 잘 그리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사람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눈에는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요? 네. 볼 권리가 있죠. 그럼 입에는요? 네. 그렇죠. 먹을 권리, 말할 권리 등이 있지요. 이렇게 몸에 각 부분에 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지난 후) 다 찾으셨나요? 고생 많았어요. 방금 하신 것에 한 개를 더 해볼까하는데요. 일단, 세계인권선언을 나눠 드릴게요. (세계인권선언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인정하자'라고 함께 모여서 선언한 인권선언입니다. UN이라는 기구에 함께 참여한 나라에서 함께 만들었는데요. 참 UN이라는 기구는 아시죠? 네. 맞아요. 국제연합이에요. 반기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기도 하죠. UN은 제1,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지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은 하지말자', '국가 간에 국제평화와 협력을 도모하자'며 만든 국제기구예요. 이 UN에서 1948년에 '인간에게는 최소한 이 정도의 권리가 인권이 필요하다'라며 만든 선언입니다. 실제로 선언은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각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꾼 중요한 선언이죠.

자, 여러분이 찾은 우리 몸에 있는 권리가 세계인권선언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전지에 적은 권리가 세계인권선언 몇 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모듈별로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모듈발표 후 진행자가 같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인권이 아닌, 몸의 생리현상이나 반인권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리가 인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권리' 물론 중요하지만 큰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조정해야 할 권리도 있을 것 같아요.



### TIP 다님2

- 세계 인권선언을 미리 읽고 진행해도 좋다.
- 인권이 아닌 것(소화시킬 수 있는 권리, 씹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 작성한 실루엣에서 나온 권리 중 권리가 아닌 항목을 무조건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보자는 방식으로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실루엣에서 성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경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반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님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욕설, 폭력, 누구를 때릴 권리 등)

###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우리 몸에 이런 많은 권리가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권리가 없을 때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 맺음새 (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한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우리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권의 더 넓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합니다.





### ‘함께 고민해봐요’

#### 정신보건시설에 CCTV설치는 과연 정당한가요?

▶ **상황** :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일일까요?

▶ **대안만들기** : 이 문제의 핵심은 정신장애인의 사생활보호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자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이거나, 극도로 우울한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이 있다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네요. CCTV보다는 환자 수에 맞게 치료자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해요. 너무 이상적이라구요? 네. 약간은 이상적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CTV설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CCTV설치를 부득이하게 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는 공간은 제외해야 하고, CCTV 설치에 대한 동의, CCTV 내용의 저장기간과 CCTV관리 담당자에 대한 공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최근 CCTV를 악용한 사례(CCTV내용조작건, CCTV설치를 인지하고도 사고를 일으키는 건 등)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CCTV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 9. 인권지도 그리기



### 목 표

1.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의 인권에 대해 알아본다.
2. 인권침해 혹은 차별당하는 사례 / 지지받고 존중받는 사례를 살펴본다.
3.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준 비 물

풍선, 2절지(모듬별로 준비), 크레파스, 매직, 필기도구, 세계인권선언 유인물, 스카치테이프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님1. “풍선을 통통”(10분)

- (1) 4,5명이 한 모듬으로,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고 서서 풍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맞잡은 손을 이용하여 풍선을 칩니다.
- (2) 참가자들은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풍선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풍선을 쳐서 올립니다. 진행자는 모듬이 만든 원안으로 풍선을 하나씩 더 추가하여 넣습니다. 각 모듬은 풍선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협력하여 풍선을 쳐서 올립니다.

■ **진행자 멘트** : 자, 오늘 첫 프로그램은 약간의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프로그램 이름은 ‘풍선은 통통’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참여자에게 질문) 네. 맞아요. 4,5명이 한 모듬을 만들었으면 해요. 풍선을 한 개 드릴게요. 이 풍선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풍선을 서로 통통 튀겨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듬에 있는 사람끼리 함께 손을 잡아주세요. 다 잡으셨으면 똑같이 풍선을 통통해주세요. 잡은 손은 놓지 말구요. 와. 신나게 하셨지요? 이번엔 모두 함께 손을 잡아볼까요? (모듬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이번엔 풍선 두 개를 통통 튀겨볼까요?~ (게임에 대한 소감나누기)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TIP 다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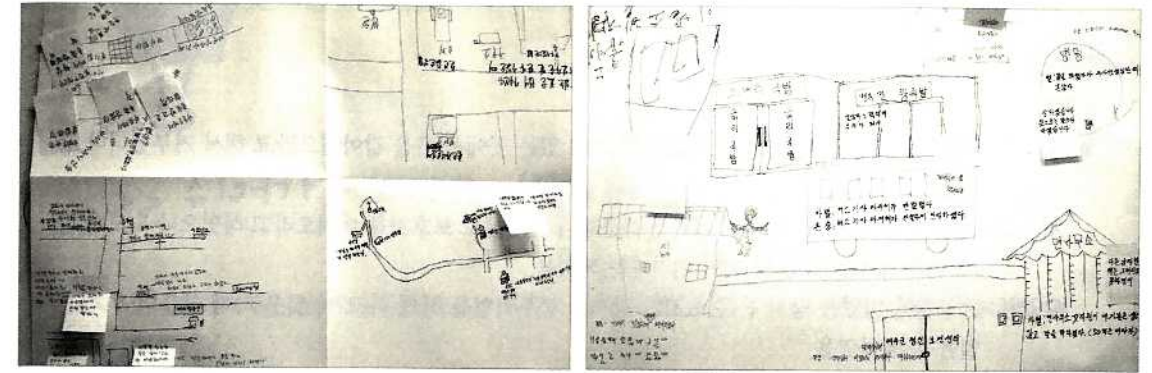
- 풍선을 개인당 1개씩 주고 자신의 이름 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풍선에 적게 해서 개인별로 통통 튀겨 보아요. 풍선을 바꾸어서 튀겨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요.
- 공간이 협소할 경우 보자기나 큰 천, 티셔츠, 접퍼 등을 사용하여 그 끝을 잡고 2명이 공을 튀기고 한명씩 추가하여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다님2. 인권지도 그리기(30분)

- (1) 회원들의 생활공간을 4부분(가정, 병원, 센터, 지역사회) 정도로 나눠 인권지도를 그리고, 그 곳에서 인권침해 혹은 차별 당하는 사례 / 지지받고 존중받는 사례를 적어봅니다.
- (2) 지난 주 진행되었던 '내가 차별당한 경험', '내가 존중받았던 경험' 을 각각 지도에 나눠서 적을 수 있도록 지난 주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각 모듈별로 작성한 것을 발표해봅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은 '인권지도그리기'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인권지도' 를 그려볼까 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지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부터, 자주 다니는 병원, 그리고 바로 이곳, 정신보건센터, 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정신장애인이란 무시를 당했다' 던지, 병원에서 '무조건 반말을 써서'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곳에서 좋았던 경험 등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아래에 제시해놓은 각 영역별 침해예시 사례 이용)

(다들 모듈에서 작성이 되었다면) 다 하신 모듈부터 발표해 볼까요? 다른 모듈원들은 발표하신 분들 어떤 내용 쓰셨는지 잘 들어주세요. 네, 수고하셨다고 박수쳐 주실까요? (짜짜짜) 다음 모듈 발표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나와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지도를 그려봄으로써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일상에서의 존중에 대한 경험들을 알 수 있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TIP 다님2

- 진행시 진행자가 도와준다고 직접 그림을 같이 그려주는 것은 참가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어요. 진행자가 답답하더라도 참가자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 참가자들이 적었던 침해 항목이,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정리(예시 제시)해주거나 반대로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진행자의 생각을 주입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해요.
- 인지가 어려운 참석자들이 있다면 그림카드 및 단어카드(예를 미용실, 경찰서, 식당, 병원 등 시범운영 때 나왔던 곳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할 필요가 있음.)를 이용해서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기본 교구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 이보다는 가상의 마을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 안에 가게, 집, 센터, 병원 등을 넣어 그 안에서의 차별과 존중의 경험을 쓰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거예요.
-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병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로 인한 편견으로 침해 받았던 사례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지속적인 세부설명과 지지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무시당했다고 해서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참여자들에게 정리

(실제 인권침해사례인지 또는 증상, 감정에 의한 반응인지 구분 필요)

- ▶ **존중받는 경험과 구분해야 할 부적절한 예시**
  - 경찰서에서 원동기 면허증을 따. / 복지카드를 받았을 때.
- ▶ **차별받는 경험과 구분해야 할 부적절한 예시**
  -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 / 친구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친구 아버지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웠다. 그래서 쫓겨났다. 기분이 나빴다. / 두부 사오라고 시킬 때.





### 각 영역 침해받았던 예시

- ▶ **병 원** : 병원에 입원하는데 간호사, 보호사가 보고 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강박당했던 상황.
- 치 과** : 간단한 충치치료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노모가 함께 가지 못해 치료를 못 받아 이가 훼손되었음.
- 요양원** : 요양원에 있었을 당시 돈은 썼지만 강제로 봉투작업을 하게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을 하게 하였음.
- ▶ **직 장** :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만두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40만원을 주면서 나에게는 30만원만 주었다.  
수급권자로 남기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돈도 주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면서 수급권자가 일하면 수급권이 박탈된다면서 동사무소에 알리겠다고 협박할 때.
- ▶ **행정기관** : 외모가 어눌해 보인다고 반말하거나 무시할 때.
- ▶ **지역사회**  
전철역 : 정신장애인이란 호칭이 귀찮아하며 얼른 들어가라고 함.  
도서관 :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태도가 달라질 때(책을 대여할 때)  
공 원 :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수위가 와서 꼭 약 먹은 사람 같다고 나가라며 내쫓음.  
보 험 : 보험가입제한(보험약관에 정신질환 관련된 치료와 약물 투약중이면 가입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자타해 위험이 있어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움)

### 맺음새 (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가정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정공동체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내가 잘 하고 있는 행동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 >> 수어가는 페이지 (당사자의 이야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공적 서비스 이용·혜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어요”
-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위축되고 정당하게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장애인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신장애인과 소통이 잘 안돼서 답답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터놓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편견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선불리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워요. 소통의 문제, 정신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어떤 공공시설을 가더라도 편의를 봐주는 것 같지만, 정신장애인들은 마음에 병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문화시설 등에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환청과 분열증이 있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하고, 힘들 때 약을 많이 먹고 했어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체랑 연결해줄때 분열과 환청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 “비장애인들과 일을 하는 곳에서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하기가 어려운거 같아요.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속여야 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서 힘든 것 같아요”
-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장애를 밝히고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맘대로 되지를 않죠. 오히려 취업할 때 내가 몇 급이고,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고, 그걸 당당하게 밝히고서 취업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 “저 같은 경우엔 증상이 있어도, 참고 일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험이 있어요.”
- “제 가족은 8남매인데, 저를 제외한 형제자매들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제 가족들도 굉장히 편견이 많아요. '고지식하고 재수 없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는 가서 잠이나 자라' 등. 나는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나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말이죠. 서글퍼지더라고요.”
- “입원했다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얘기를 잘 받아주시다가도 가끔씩 심한 말씀을 하시죠.”





# 10. 인권 공간 만들기

## 목 표

- 1.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살펴본다.
- 2. 관계 속에서 인권 존중의 방해요소와 필요요소를 탐색해본다.
- 3.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해본다.



## 준 비 물

세 가지 색깔 포스트잇(색지)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진행자 멘트** :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지도를 그려봄으로써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일상에서의 존중에 대한 경험들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지난 시간 이후 일상에서 존중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참여자들 이야기) 네 그러셨군요. (감정 다루어주기)

### 다짐1. 이 공간에는 \*\*\*이 필요해요. (40분)

- (1) 해당 공간이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가정에는 \*\*\*이 필요해요', '병원에는 \*\*\*이 보장되어야 해요', '센터에는 \*\*\*이 필요해요' 등을 포스트잇(색지)에 작성해서 화이트보드에 모아봅니다.
- (2) 화이트보드에는 '가정, 병원, 센터, 지역사회' 로 구분해서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너무 큰 분류대로 적었다면, 좀 더 세분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권에서도 어떤 부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병원에서는 존댓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추가해줍니다.
- (3) 참가자들과 내용을 공유해보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봅니다.

▶ **진행자 멘트** : 자 이번엔 '이 공간에는 \*\*\*이 필요해요' 라고 써보는 걸 해보려합니다. 우리가 존중받았던 또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존중이 필요해요' 라든지, '지역사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일할수 있게 지원해야해요' 라든지 해당 공간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볼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 <예시>

- ▶ 지역사회 : 인식개선이 필요해요 / 경어로 응대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 장애와 상관없이 일 할 곳이 필요해요
- ▶ 센터 :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 ▶ 병원 :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 치료진들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의 주의가 필요해요. / 치료과정에 설명이 필요해요
- ▶ 가정 : 형제, 자매 차별이 없어야 해요 / 따뜻한 대화가 필요해요

▶ **진행자 멘트** : 이번 시간에 나와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권 보장의 공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맺음새 (10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 1.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침해당하기 쉬운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에서 토의해 봅시다.
- 2.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침해당해왔던 인권을 알고 권리를 스스로 옹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합니다.



## 11. 법과 친해지기

### 목 표

1.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다.
2. 기타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준비물

종이, 필기도구, PPT, 빔프로젝트, 노트북, 보드마카, 칠판

###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님1. 빙고게임(10분) [부록1참조]

- (1) 빙고게임을 하기에 앞서 4회기에 함께 찾고 만들었던 “인권을 존중하는 단어찾기”에서 나온 단어들을 바탕으로 빙고게임을 진행해봅니다.
- (2) 이를 사용하여 각자 또는 팀을 이루어 빙고 칸을 존중의 단어들로 채우고 돌아가며 단어들을 말하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 TIP 다님1

- 대상자의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고 격려하여 다양한 은유를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단어 및 존중의 단어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 경우 미리 단어(권리-지위-사람-자유-성차별-정치-참여)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아요.

### 다님2. 정신장애인이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살펴보기 (40분)

- (1) 쉽게 풀어쓴 정신장애인이 알아야 할 법에 대해 프린트를 나누어주고 진행자는 PPT를 이용해 설명하며 함께 얘기해봅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엔 우리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거예요. 일단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이 프린트된 자료를 받아주세요. 이번 시간이 끝나도 잘 가지고 계시면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PPT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PPT제시/만화제시)



### [구제청구 하는 법]

시설에 수용되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저는 다님이고 인권저렴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서 구제 청구를 하면 돼요.

수용자(시설장)	피수용자(그 사람)
여권 어디? 수용자의 성명, 주소, 특정상황.	어맛~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등.

